

2021년 6월 17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원예경영과 김희중과장(044-201-2251), 권병철 · 박주용사무관(2258, 2260)/ 제공일: 6월 16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농식품부, 여름철 재해대비 원예시설 피해예방 합동점검 추진

《 주 요 내 용 》

- ◇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따른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 우려지역의 시설하우스 및 과원 대상 합동점검 추진
 - 최근 3년간 여름철 재해 피해를 입은 5,637개소(온실 4,622, 과원 1,015)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사전 점검을 실시(6.4~6.16) 완료
 - 그중 조치 미흡시설(361개소)에 대해 농식품부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7개팀이 6.14일부터 18일까지 점검, 지도 등 추진 예정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'농식품부')는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 우려지역*의 시설하우스와 과수원별로 사전 예방조치 점검을 추진한다.

* 최근 3년간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5,637개소(시설하우스 4,622, 과수원 1,015)

-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국지성 집중호우가 우려되고, 1~3개 태풍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.
-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'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시설하우스 및 과수원 관리요령'을 농가에 안내하였고,

-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배수로 정비 등 농가별 사전 조치와 피해 요인 정비 여부 확인 점검을 지자체별로 6월 16일까지 완료한 바 있다.

* 점검결과(6.14일 현재) : 점검완료 4,382개소 중 양호 4,021개소(92%), 미흡 361개소(8%)

- 이번 사전 예방조치 합동점검은 농촌진흥청, 지자체, 농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사전점검 결과 조치가 미흡했던 시설(361개소)과 상습 침수 등 피해가 잦았던 농업시설 대상으로 6월 1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.

- 7개팀 2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점검기간(6.14~6.18) 동안 분야별 보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, 미흡한 사항에 대한 현장 지도를 통해 여름철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추어 예정이다.
- 특히, 시설하우스는 논이나 저지대에 설치된 경우가 많은 만큼 집중 호우시 침수에 대비한 배수로 정비, 배수펌프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,
- 일자형 지주시설이 많은 과원은 강풍에 의한 도복 피해에 취약한 만큼 철선 연결, 버팀목 고정 여부 등과 방풍망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.

- 권재한 유통소비정책관은 “최근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”고 강조하면서,

- “지자체, 농협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시설하우스와 과원에 대한 점검을 꼼꼼히 실시하고, 농가도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 피해 최소화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”을 당부하였다.